

평양의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위인 칭송의 노래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인류방해의 구심으로 높이 칭송하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인들이 4월의 명절을 인류공동의 경사의 날로 뜻깊게 맞아하고 있는 가운데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이 1 일 평양시내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물론 출연 위인이나 주제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끊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다채로운 청중들에 담아 홀륭히 형상화되었으며 강성번영의 용대한 구상을 현실로 꽂아워나가며 2 1 세기의 새로운 날대를 승리

윤이상은 악당과 동평양대극장에서

벨라루시 «클라씨크 아반가드» 쇼피아가극극장소속 «오르페이» 배우단은 드라마를 기행가일행은 물론 출연자들은 윤이상이자며 공연하였다.

벌가리아 소피아가극극장소속 «오르페이» 배우단 드라마를 기행가일행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무대에 올렸다.

장내에 불멸의 혁명송가가 장증하게 울려 퍼지자 관중들은 비빔한 예지와 걸출한 명도력, 숭고한 품모를 지니시고 나리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해 헌신하신 경에 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한생이 어려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지 못해하였다.

축전준비를 성의껏 해온 벌가리아 출연들은 혼성 2 중창 «셀비오와 네이더의 2 중창», 너정도장 «포스카의 어리아» 등의 종목들을 펼쳐보여 공연무대를 이제롭게 장식하였다.

벨라루시 출연들은 우리 나라 노래 «아리랑»을 섬세하게 연주하였다.

관중들은 선율을 들으며 선군의 풍대가 있어 민족수년의 비운이 드러웠던 이 땅에 인민이 참된 삶과 행복이 꽂아온 내 나라, 내 조국이 거연히 솟아 빛을 뿐리게 되었음을 절감하였다.

민속노래들인 «성스러운 유리와 룽», «공작과 기사들»,

로 빛내 이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열렬히 칭송하는 진보적인 인류의 의지

를 감명 깊게 보여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 국내 공수상자들, 명예 우두들이 참가한 공연무대에는 자주의 기치 따라 평화로운 새 세계에서

친선의 뉴대를 강화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이 담겨진 시장에

술성이 높고 민족적 색채가 짙은 종목들이 올랐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관계 부문 일군들, 시내 국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 27 차 4 월의 봄 친선 예술 축전 첫 공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뜻깊은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 수록 온 거래의 가슴속에서는 민족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정이 세차게 분출하고 있다.

탁월한 사상과 영도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그 험난한 토대를 닦으시고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은 민족사에 아로새겨져 찬란히 빛나고 있다.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로 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쟁원된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안팎의 불법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쳐서 민족지상의 파제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민족의 영원한 대양이 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투쟁역사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끌어내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행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간고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봉도하시여 안아오신 조국해방과 함께 우리 거래앞에는 새 조국건설의 길이 활짝 열리였다.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는 들변하였고 우리 거래는 민족분열이라는 엄청난 혁사의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다. 미제의

민족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

침략적 야망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3·8 선은 반만 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단란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물로 갈라놓았다. 조성된 안팎의 정세를 길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거래를 민족의 영구분리를 막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빌리으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온갖 난관과 장애를 주동적으로 타개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셨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학제적 세력과 남조선통치자들의 힘으로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아나서는 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험입없이 강화발전시켜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명도는 실로 훌륭한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시종일관 하니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자주적 대를 굳건히 세워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끌어내고 전국민적위법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며 전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것이라는 대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민족이라는 사회적집단의 존립과 그 발전의 본초조건, 기본방식에 대한 철학적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인 정식화였다. 이에 토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과 관련되

는 사활적인 문제로, 민족지상의 파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니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해 오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조국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주인이 되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

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자는 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략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에 우리 민족을 정치아래 이끄신 빛나는 예지와 탁월한 선견지명의 혁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외세를 등에 엔 남조선 반통일세력의 책동이 계속되는 부작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 0대 강령, 고려민주현장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해주시였다.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

도를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

단결의 3대원칙, 온 민족의 단합

을 이루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 혁

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민족대단결

1 0대 강령,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험방도를 밝힌 고려민주현장공화

국창립방안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

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주정

신으로 일ぱ되어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루하

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승고한 조국과 민족에 푸구현하고

고 있다. 또한 북과 남에 서로

는 협력과 협동으로 풀어나가

는 혁파였다.

조국통일로선을 틀어줘서 하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 있다.

이에 위대한 현장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수령님이 시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온 거제의 국

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뚫어새우신분도 우리 수령님이 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

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

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

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이어 조국을 통일에 투罄하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내놓으신 조국통

일 3대현장을 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불법의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하기 위

되였으며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

약의 차이를 뛰어넘어 온 민족이

통일을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

쳐나가는 혁사의 새시대가 점쳐지

게 되었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을 이어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도

우리 거제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

시리고 놓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정

경, 당파와 신당, 정치생활에

여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거제가

여전히 모습은 오늘도 우리 거제의

가슴마다에 소중히 간직되어

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사와 민족

에 경지시키는 불멸의 조국통일유훈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허영민

다함없는 청송파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으신 업적은 통일위업 완성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민족의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밀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은 민족사에 영원히 놓을 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여하도록 하신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되고 온 거제의 국

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뚫어새우신분도 우리 수령님이 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척하시고 이풀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오늘 위대한 형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한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혁사적발전단계에 올라섰다.

<p

